

Morning Meeting Brief

Highlights ...

투자포커스

Chart Tour4(Chemical). 양치기소년과 화학업종

- 7월 들어 이익(실적)을 제외한 화학업종 변수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
- 화학업종은 이익에 근거한 추세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반등'과 'KOSPI 대비 Outperform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 근거는 1) 상품가격(CRB지수,yoy%) 기저효과 2) 3분기 이후 영업이익(12M Fwd,yoy%) 개선 3) 수급 개선 4) '중장기 지지선'/'상승 채널 하단'/'상대 지수'에 대한 신뢰 5)업종 사이클의 반등 국면 진입임

김영일 769-2176 ampm01@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신화인터텍: 시장의 오해, 지금 매수하라

- 시장 오해로 인한 신화인터텍 주가 조정은 절호의 매수 기회
-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2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250억원)은 기존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 희석효과는 없음
- 금번 사채 차환은 기존 BW보유주의 자금수요로 인한 것으로 판단

김태성 769-3084 ted_kim@daishin.com

컴투스: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화될 전망

- 목표주가 56,000원, 투자등급 매수의견 신규 제시
-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화될 전망
- 타이니팜 추가적인 성장 가능,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게임 라인업 보유

강록희 769-3097 lhkang@daishin.com

세아제강: 2Q 영업이익 예상보다 부진, 그러나 점차 전년비 증가세로 전환

-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yoy증가) 예상
- 유가 회복시 강관 수출 증가로 실적 상향 가능성
- 내년부터 JCO설비와 SPP강관 설비 본격 가동으로 성장 잠재력 풍부

문정업 769-3068 jeongup@daishin.com

오리온: 2분기도 견재하다

- 2분기 실적, 해외제과 호조로 기대 이상
- 글로벌 경기위축도 피해가는 해외제과 고성장, 규모의 경제로 이익 개선폭은 매출 성장 상회
- 투자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1만원으로 상향

이선경 769-3162 sunny_lee@daishin.com

투자포커스

Chart Tour4 (Chemical) – 양치기 소년과 화학업종

Technical Analyst 김영일 769-2176 ampm01@daishin.com

Chart Tour는 기술적으로 업종의 주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제시하는 자료로 금번 자료는 7월 이후 화학업종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작성되었다.
(최근 자료는 1/12일 Chart Tour3, 음식료업종: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리고 시스코)

화학업종 ‘하반기 반등과 KOSPI Outperform 스토리’

7월 들어 이익(실적)부분을 제외한 화학업종 변수의 긍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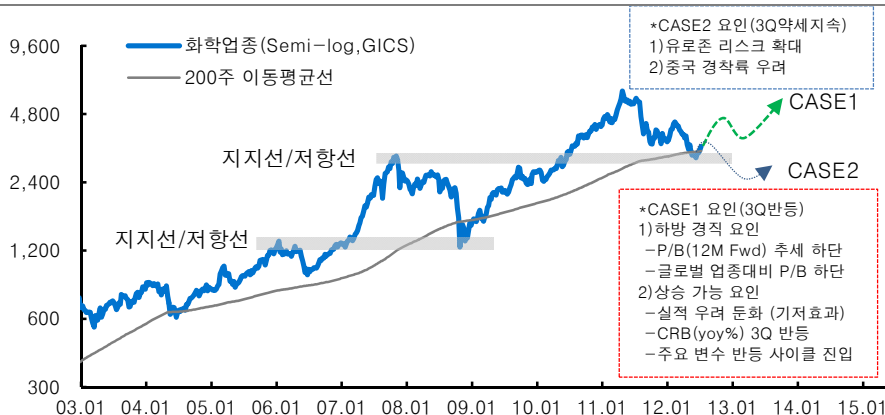
화학업종은 이익에 근거한 추세적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반기 반등’과 ‘KOSPI 대비 Outperform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상품 가격(CRB지수, yoy%) 기저 효과
- 2) 3분기 이후 영업이익(12M Fwd, yoy%) 개선
- 3) 수급 개선(기관 순매수 기조와 외국인 비중 확대) 가능성
- 4) ‘중장기 지지선’과 ‘상승 채널 하단’ 그리고 ‘상대 지수’에 대한 신뢰
- 5) 업종 사이클의 반등 국면 진입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등 스토리를 겨냥한 비중 확대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림 1. 화학업종 3Q 강세 가능성 요인이 우세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및 종목 분석

신화인터텍

(056700)

시장의 오해, 지금 매수하라!

투자포인트

- 시장 오해로 인한 신화인터텍 주가 조정은 절호의 매수 기회
-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200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250억원)은 기존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 희석효과는 없음
- 금번 사채 차환은 기존 BW보유주의 자금수요로 인한 것으로 판단

Comment

시장의 오해가 제공한 절호의 매수기회

어제(7월10일) 신화인터텍 주가는 450억원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소식에 급락하였다. 이는 시장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당사는 이번 주가 급락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 판단한다. 금번 사채 발행은 동사가 기존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차환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희석효과는 없으며 오히려 행사가격이 증가하면서 희석 가능 증권 수는 기존대비 14% 가량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신주인수권부사채(450억원) → 금번 발행 전환사채(200억원) + 금번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원)으로 차환]

기존 사채 차환은 기존 BW보유주의 자금수요로 인한 것으로 판단

금번 BW차환은 기존 BW보유주의 태양광 관련 자금수요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존 BW는 동사 모회사인 오성엘에스티가 150억원, 오성엘에스티의 대주주인 수성기술이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수요가 더욱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공모를 통해 450억원의 자금을 CB, BW 형태로 시장에서 조달하여 오성엘에스티와 수성기술이 보유 중인 채권을 상환하면, 상환된 자금은 태양광 관련 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

TV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0%~20% 증가하여 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복합필름 매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부터 TV시장에 회복이 기대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매출 개선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542	320	364	376	380
영업이익	5	10	36	58	68
세전순이익	-21	-28	29	52	61
총당기순이익	-12	-32	29	46	55
지배지분순이익	-12	-33	28	45	53
EPS	-656	-1,744	1,233	1,783	2,102
PER	NA	NA	3.8	2.7	2.3
BPS	5,267	3,868	5,144	6,927	9,029
PBR	2.0	0.9	0.9	0.7	0.5
ROE	-12.1	-38.2	27.6	29.5	26.3

주: 영업이익은 회계법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신화인터텍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태성 769,3084
ted_kim@daishin.com

BUY

[매수, 유지]

디스플레이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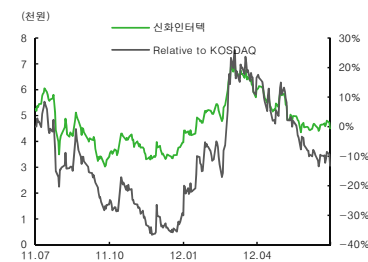
현재가 4,500

목표주가
▲ 167%

12,000

KOSDAQ	492.34
시가총액	86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
자본금(보통주)	13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7,050 원 / 3,03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7 억원
외국인지분율	2.5%
주요주주	오성엘에스티 외 3 인 23.6%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4.3	-	-	-
		1.0	24.9	13.5
상대수익률	-4.0	-	-	-
		7.1	26.0	12.7



기업분석 2012.07.11

컴투스
(078340)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화 될 전망

투자포인트

- 목표주가 56,000원, 투자등급 매수의견 신규 제시
-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화될 전망
- 타이니팜 추가적인 성장 가능,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게임 라인업 보유

강록희 769,3097
lhkang@daishin.com

BUY

[매수, 신규]

인터넷업종

현재가 45,100

목표주가
▲ 24%

56,000

Comment

목표주가 56,000 원, 투자등급 매수의견 신규 제시

목표주가 56,000원과 투자등급 매수의견을 신규 제시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 2,220원과 Target PER 25배를 적용하였다. Target PER 25배는 과거 2개년 Low PER 24.5배 수준이며, 2개년 평균 PER대비 33% 할인된 수치이다. 투자의를 매수로 제시하는 이유는 1)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2) 타이니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게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외 모바일게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분기부터 수익레버리지 효과 본격화될 전망

2010년과 2011년 1분기까지는 매출증가가 인건비 및 수수료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10%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신규 모바일게임인 타이니팜과 프로야구 2012 등의 흥행 성공으로 수익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62.9% 급증한 183억원, 영업이익도 전분기대비 691.8% 대폭 증가한 41억원으로 추정된다. 2분기 실적 호전은 1) 타이니팜이 MCU(동시접속자수) 4만명, DAU(일일 유효접속자수) 1백만명, 가입자수 610만명을 넘어서면서 월평균 25억원 수준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2) 프로야구 2012 등 신규 출시한 모바일게임이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OSDAQ	492.34
시가총액	4,549 억원
시가총액비중	0. %
자본금(보통주)	50 억원
52주 최고/최저	46,850 원 / 10,7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38 억원
외국인지분율	12.7%
주요주주	이영일 외 7 인 21.5%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10.6%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0.9	30.3	102.7	274.3
상대수익률	1.2	22.3	99.6	277.7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309	362	755	1,012	1,269
영업이익	26	30	158	277	369
세전순이익	44	45	215	294	389
총당기순이익	41	41	183	243	321
지배지분순이익	41	41	183	243	321
EPS	411	411	1,816	2,408	3,186
PER	32.4	53.5	24.8	18.7	14.2
BPS	6,150	6,940	8,804	11,267	14,516
PBR	2.2	3.2	5.1	4.0	3.1
ROE	13.4	6.3	23.1	24.0	24.7

주: 영업이익은 회계법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컴투스, 대산증권 리서치센터

Earnings Preview 기업분석 2012.07.11

세아제강 (003030)

2Q 영업이익 예상보다 부진, 그러나 점차 전년비 증가세로 전환

투자포인트

-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yoy증가) 예상
- 유가 회복시 강관 수출 증가로 실적 상향 가능성
- 내년부터 JCO설비와 SPP강관 설비 본격 가동으로 성장 잠재력 풍부

문정업 769,3068
jeongup@daishin.com
노경욱 769,3069
nku12@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철강금속업종

현재가 98,100

목표주가
▲ 33%

130,000

Comment

분기 실적 모멘텀과 SPP 강관 인수에 따른 성장 모멘텀 유효, 매수(Buy) 유지

그동안 1)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강관 수출량 감소 우려와, 2) 자사주 매각(10만주, 6/8일 종료)에 따른 수급 이슈로 하락세를 보인 동사의 주가는 2분기부터의 실적 모멘텀(yoy 증가)과 세계적 저금리에 따른 유가 회복 가능성 등으로 점차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화물연대 파업에 이은 건설노조 파업과 핫코일가격 약세 속에 강관 제품단가 할인 가능성 등의 부담 요인이 있지만 여전한 저평가 매력과 SPP강관 인수에 따른 성장성 부각 등으로 주가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목표주가 13만원은 올해와 내년 평균 EPS의 PER 8.5배 수준이며, 올해 예상 BPS의 PBR 0.77배 수준이다. 향후 동사에 대한 리스크는 국내 강관제품 단가가 재차 할인이 성행할 경우(포스코의 핫코일 가격 인하 등으로)와 인수한 SPP강관 설비의 가동률이 저조할 경우이다.

2Q 영업이익, 당초 예상보다 낮은 313 억원으로 전망, 하지만 5분기만에 증가

세아제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치(363억원)보다 낮은 313억원(+3.4% QoQ)으로 예상된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노조 파업에 따른 국내 강관 판매량 저조로 2분기 전체 판매량이 전분기대비 3% 감소한 30만톤(강관 23만톤 판재류 7만톤)에 그치고, 제품단가도 강관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KOSPI	1829.45
시가총액	589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
자본금(보통주)	30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1,000 원 / 58,0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 억원
외국인지분율	6.9%
주요주주	이운형 외 12 인 54.7%
	포스코 10.2%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6.6	10.2	0.8	10.0
상대수익률	8.9	10.6	9.9	31.1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0A	2011A	2012F	2013F	2014F
매출액	1,542	1,712	1,868	2,153	2,233
영업이익	129	100	120	142	158
세전순이익	122	105	113	125	137
지배지분순이익	98	72	86	95	104
EPS	16,373	11,988	14,254	15,852	17,407
PER	3.2	5.5	6.9	6.2	5.6
BPS	150,698	157,668	168,825	181,799	196,520
PBR	0.3	0.4	0.6	0.5	0.5
ROE	13.2	7.8	8.7	9.0	9.2

주: K-IFRS 별도기준인 영업이익은 회사발표 기준,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수치 기준
자료: 세아제강 전망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Earnings Preview 기업분석 2012.07.11

오리온
(001800)

2분기도 견재하다

이선경 769,3162
sunny_lee@daishin.com

BUY

[매수, 유지]

음식료업종

현재가 944,000

목표주가
▲ 18% 1,110,000

투자포인트

- 2분기 실적, 해외제과 호조로 기대 이상
- 글로벌 경기위축도 피해가는 해외제과 고성장, 규모의 경제로 이익 개선폭은 매출 성장 상회
-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111만원으로 상향

Comment

해외제과 부문 영향으로 2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 이상 전망

오리온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161억원(+27.6% YoY), 영업이익은 587억원(+106.4% YoY)으로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558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제과의 부진폭 이상의 해외제과 호조로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이 전망된다. 기타 부문 중 스포츠포토는 150억원의 영업이익, 미디어플렉스는 1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자가 예상된다.

경기도 피해가는 해외제과의 고성장, 하반기도 기대된다

2분기에도 해외제과의 고성장과 이익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 기준 30%, 원화 기준 38%의 성장이 예상된다. 영업이익률은 9.2%로 전년동기대비 1.3%p 개선될 전망이다. 베트남과 러시아도 원화기준 20% 이상 성장하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1%p, 3.6%p 개선된 8.5%, 7.5%로 예상된다. 전지역에 걸친 높은 탑라인 성장과 이익률 개선으로 전체 해외제과 매출은 2,56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31억원으로 57% 성장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하이퍼마켓 중심의 영업에서 전통시장 확대를 위해 소량(개별)포장 판매 등으로 지역 커버리지와 채널 커버리지 확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국 내 스낵류의 가격인상도 기대된다. 러시아와 베트남도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사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로 고성장이 이어질 전망으로 동사의 해외제과 매출은 향후 3년간 연평균 2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2% 성장할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1만원으로 상향, 스포츠 토트 가치 투자자산으로 반영

오리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109만원에서 111만원으로 상향한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는 해외제과에 대한 매출 및 이익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고 부진한 국내제과의 이익을 하향 조정했으나 전체적인 실적 추정 변경은 미미하다. 그러나 높아진 해외 부문 이익 기여도와 해외부문에 적용된 밸류에이션과 국내부문에 적용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반영됨에 따라 목표주가는 상향 조정 한다. 스포츠 토트와 관련해 재계약 불투명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영업이익에서 스포츠포토 관련 이익을 제외하고 스포츠포토 지분가치를 자산가치로 재분류해 반영했다.

KOSPI	1829.45
시가총액	5,632 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5%
지분금(보통주)	30 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89,000 원 / 472,500 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 억원
외국인지분율	42.9%
주요주주	이화경 외 9 인 31.5%
	Fidelity Funds 외 35 인 8.7%

주가수익률(%)	1W	1M	3M	12M
절대수익률	1.7	-2.7	14.6	94.6
상대수익률	3.9	-2.4	24.9	132.0



2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상, 불황을 모르는 해외제과

2분기도 해외제과의 호조로
기대 이상의 실적 전망

오리온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161억원(+27.6% YoY), 영업이익은 587억원(+106.4% YoY)으로 매출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558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국내제과는 2분기에 매출액 2,015억원(+7.8% YoY)과 영업이익 155억원(-3.0% YoY), 영업이익률 7.7%가 예상된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한자리 수 후반대의 탑라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촉 및 광고 증가에 비해서는 매출 성장이 부진해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해외제과는 중국이 위안화 기준 30%, 원화 기준 38%의 성장, 베트남과 러시아도 원화기준 20%의 성장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과 무관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부문의 매출호조는 판관비의 증가가 수반되고 있지 않아 규모의 경제효과가 영업이익률 증가로 이어지며 이익의 개선폭은 매출 성장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분기 해외제과 전체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57% 성장이 전망된다.

표 1. 오리온 분기 및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

		1Q11	2Q11	3Q11	4Q11	1Q12	2Q12F	3Q12F	4Q12F	2011	2012F	2013F	2014F
매출액	전체	489.2	404.4	492.3	528.4	626.3	516.1	556.7	632.9	1,914.3	2,332.1	2,694.1	3,073.1
	제과	402.7	352.8	413.2	433.6	507.9	451.1	470.8	528.8	1,602.3	1,958.6	2,296.3	2,655.9
	국내	191.7	187.0	182.2	196.3	209.0	201.5	196.9	212.3	757.1	819.8	885.4	947.3
	해외	220.4	191.0	219.3	253.3	306.3	256.2	280.8	324.2	884.0	1,167.5	1,444.5	1,747.3
	기타	(9.4)	(25.2)	11.7	(15.9)	(7.4)	(6.6)	(6.9)	(7.7)	(38.8)	(28.6)	(33.5)	(38.8)
	스포츠레저	67.0	42.7	63.0	77.9	94.2	57.7	69.3	85.7	250.6	306.9	328.4	344.8
	영상	16.9	4.4	13.7	15.3	21.4	4.6	14.4	16.1	50.3	56.5	59.3	62.3
	건설	2.2	4.0	2.0	2.8	2.5	2.5	2.0	2.0	11.0	9.0	9.0	9.0
YoY (%)	전체	17.1	6.1	31.9	24.7	28.0	27.6	13.1	19.8	20.0	21.8	15.5	14.1
	제과	26.8	15.3	28.7	25.4	26.1	27.9	13.9	22.0	24.1	22.2	17.2	15.7
	국내	18.1	13.6	11.5	12.9	9.1	7.8	8.1	8.2	14.0	8.3	8.0	7.0
	해외	31.7	25.8	30.0	31.7	39.0	34.1	28.0	28.0	30.0	32.1	23.7	21.0
	스포츠레저	(10.3)	(38.3)	30.6	18.9	40.6	35.0	10.0	10.0	(2.7)	22.4	7.0	5.0
	영상	(8.8)	72.8	572.3	209.6	26.5	5.0	5.0	5.0	79.3	12.2	5.0	5.0
	건설	(67.6)	18.5	63.8	(64.1)	14.2	(37.8)	2.4	(29.1)	(42.7)	(18.1)	0.0	0.0
매출총이익		220.4	162.6	219.0	235.2	287.4	229.0	249.3	285.3	837.1	1,051.0	1,207.9	1,389.6
영업이익		77.1	28.5	67.3	37.2	112.8	58.7	78.2	57.0	210.0	306.7	372.7	447.5
순이익		49.6	14.1	39.4	7.4	76.2	36.0	49.6	34.4	110.5	196.2	242.6	297.5
EBITDA		94.1	63.8	95.7	66.4	136.3	82.7	102.2	81.4	320.0	402.7	465.4	541.6
YoY (%)	매출총이익	13.1	(6.9)	31.0	25.4	30.4	40.9	13.8	21.3	15.6	25.6	14.9	15.0
	영업이익	(13.4)	(85.6)	81.6	163.9	46.3	106.4	16.3	53.4	(37.8)	46.1	21.5	20.1
	순이익	(30.9)	(88.4)	92.7	(61.6)	53.5	155.9	26.1	362.3	(47.8)	77.6	23.6	22.6
	EBITDA	5.8	(67.7)	158.3	371.6	44.8	29.7	6.8	22.6	(24.3)	25.8	15.6	16.4
매출총이익률		45.0	40.2	44.5	44.5	45.9	44.4	44.8	45.1	43.7	45.1	44.8	45.2
영업이익률		15.8	7.0	13.7	7.0	18.0	11.4	14.1	9.0	11.0	13.2	13.8	14.6
EBITDA마진률		19.2	15.8	19.4	12.6	21.8	16.0	18.4	12.9	16.7	17.3	17.3	17.6
순이익률		10.1	3.5	8.0	1.4	12.2	7.0	8.9	5.4	5.8	8.4	9.0	9.7
판관비/매출액		28.8	32.3	31.0	37.9	27.4	32.4	30.6	36.1	32.6	31.6	30.7	30.4

자료: 오리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 원)

구분	7/10	7/09	7/06	7/05	7/04	07월 누적	12년 누적
개인	172.0	245.7	188.0	-165.5	-148.8	-269	-3,508
외국인	-116.2	-336.0	17.3	16.7	172.8	-189	5,706
기관계	-24.5	-43.6	-158.4	185.8	98.4	502	556
증권	-14.1	26.7	-9.9	84.7	-10.8	119	979
보험	-24.5	-19.7	-36.7	21.5	27.8	44	1,885
투신	-11.0	-63.0	-47.7	23.4	39.8	114	-1,966
은행	15.2	19.1	-6.6	25.4	19.8	105	378
종금	1.0	-0.3	-1.7	0.4	-1.2	-1	19
연기금	0.5	-2.5	-39.0	8.0	13.9	77	-978
사모펀드	-33.6	-3.9	-16.7	22.5	9.2	2	196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 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T	21.6	삼성전자	107.2	삼성전자	26.1	LG 화학	14.7
KT&G	13.1	NHN	20.6	POSCO	14.6	현대건설	12.5
SK 하이닉스	9.5	LG 전자	13.8	NHN	13.1	KB 금융	8.7
KB 금융	6.4	현대차	11.0	SK 텔레콤	9.5	OCI	8.5
현대중공업	5.9	LG 디스플레이	6.5	SK	7.4	엔씨소프트	8.4
삼성화재	4.5	삼성물산	6.4	현대차	6.7	신한지주	7.9
기아차	4.1	POSCO	5.2	KT	6.1	대림산업	7.1
삼성전기	3.7	하나금융지주	5.1	LG 유플러스	5.1	삼성엔지니어링	6.7
우리금융	3.6	SK	4.6	현대글로벌비스	4.5	현대제철	6.4
엔씨소프트	3.5	한국타이어	3.9	삼성테크윈	3.9	현대중공업	6.1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 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서울반도체	2.5	네오위즈인터넷	1.6	네오위즈게임즈	6.3	CJ E&M	3.0
에스엠	1.7	원익 IPS	0.9	OCI 머티리얼즈	2.6	에스엠	2.3
게임빌	1.1	메디톡스	0.8	CJ 오쇼핑	1.1	서울반도체	1.9
JCE	1.0	OCI 머티리얼즈	0.7	태광	1.0	테라세미콘	1.6
심텍	0.7	메디포스트	0.5	컴투스	0.8	제닉	1.3
EG	0.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0.5	코오롱생명과학	0.8	아이씨디	1.2
코오롱생명과학	0.6	네오위즈게임즈	0.5	성광벤드	0.8	위메이드	1.1
실리콘웍스	0.6	CJ 오쇼핑	0.4	인터플렉스	0.8	파라다이스	1.1
휴맥스홀딩스	0.6	위메이드	0.4	평화정공	0.6	에스에프에이	1.0
넥센테크	0.6	AP 시스템	0.4	웹젠	0.6	덕산하이메탈	0.7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화재	53.0	1.1	삼성전자	451.5	-4.1
KT	43.2	3.5	LG 전자	49.3	-3.8
SK 하이닉스	42.6	-2.5	한라공조	40.9	12.5
기아차	42.6	-0.5	하이마트	34.0	8.8
한국전력	41.9	-3.2	현대차	26.9	-1.5
OCI	40.2	-7.1	삼성물산	26.8	-5.0
대우조선해양	31.8	-4.8	LG 디스플레이	24.2	1.8
KT&G	29.4	3.8	현대제철	22.5	-4.6
엔씨소프트	24.1	-11.8	OCI 머티리얼즈	21.3	13.2
우리금융	22.9	-5.3	삼성 SDI	18.0	-5.4

자료: KOSCOM

기관

(단위: %, 십억 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삼성전자	120.6	-4.1	기아차	158.4	-0.5
호남석유	109.0	-3.8	한국타이어	56.5	-5.1
LG 화학	108.3	-1.5	엔씨소프트	53.7	-11.8
LG 디스플레이	90.1	1.8	현대차	51.1	-1.5
현대중공업	58.2	-3.0	CJ 제일제당	45.5	-6.7
한라공조	51.6	12.5	현대건설	40.6	-6.2
금호석유	46.4	-2.7	삼성 SDI	35.4	-5.4
SK	38.4	0.4	삼성화재	33.6	1.1
두산중공업	36.0	-1.0	삼성전기	32.6	-2.0
현대제철	31.6	-4.6	SK 하이닉스	28.6	-2.5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 달러)

구분	7/10	7/09	7/06	7/05	7/04	07월 누적	12년 누적
한국	-105.6	-303.9	7.0	7.4	131.0	-346	12,095
대만	0.0	-199.9	-4.1	-73.7	84.6	-153	-920
인도	0.0	0.0	109.8	82.9	55.1	1,048	9,564
태국	77.7	-0.5	32.7	-18.9	-69.7	131	2,213
인도네시아	-7.7	-48.4	11.6	7.4	63.5	120	339
필리핀	-7.8	-3.8	8.1	20.8	29.0	111	1,776
베트남	-1.5	-1.0	0.0	0.2	-0.2	-1	-27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